

에세이 제목	타깃을 찾아서
제출학생 학과	생물과학과
<p>             시간이 흘러 고학년이 되었다. 여전히 나는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대학생이다. 목표가 없으니 빈껍데기로 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 휴학도 해보았다. 빈둥거림과 자책감만 늘었을 뿐, 나아진 건 없었다. 1년의 휴학이 끝난 후, 학교에 나가보려 하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강의가 사이버강의로 대체되었단다. 또다시 집안에 틀어박히는 신세다. 진로의 불확실성이 만든 불안함은 집에 고립된 나를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p> <p>             무엇을 바라보고 노력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게 없는 상황에서 아무데나 내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은 헛짓거리를 하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모든 게 귀찮았다. 사이버 강의조차도 귀찮았다.           </p> <p>             사이버 강의로 대체된 대부분의 수업은 녹화된 영상을 듣는 방식이거나 학생의 얼굴은 비출 필요 없이 실시간강의를 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바이오의약산업’ 강의만큼은 학생들도 얼굴을 보여야하는 실시간 강의였다. 내가 듣는 강의 중 얼굴을 비추는 실시간 강의로는 이 과목이 유일했다. 한껏 나태하게 늘어져 지내던 나였지만, 그 강의를 있는 날만큼은 게으름을 부릴 수가 없었다. 강의 전날에 알람을 맞춰두고, 아침 8시 반에 일어났다. 부랴부랴 세수를 하고 머리정돈을 했다. 급하게 윗옷을 단정한 옷으로 바꿔 입었고, 카메라 각도를 조절했다. 이렇게 하면 9시 정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 늘 학생들을 주시하고 계셨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지각관리가 철저했다. 늦는 학생도 없었다. 강의를 시작되면, 강의내용에 집중하는 일 빼곤 할 일이 없어졌다. 정확히 말하자면, 할 수가 없어졌다. 화면으로 강의에 집중하지 않는 듯 하는 움직임이 미세하게라도 포착되면, 교수님은 민첩하게 잡아내셨기 때문이다. 걸리면 방금 전까지 수업하던 내용이, 질문이 되어 바로 쫓혔다. 3시간 연속강의이기 때문에 1시간마다 5분씩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덕분에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쉬는 시간이 되면 다들 화면을 꺼놓고 사라졌다가, 강의 시작할 시간이 되면 속속들이 모여드는 것이, 사이버강의이지만 현장강의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강의를 끝내기 전에는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통틀어서 키워드를 대는 의식을 치렀는데, 앞의 사람들이 말한 키워드와 겹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순서는 학생명단 순으로 매주 앞-끝, 끝-앞으로 번갈아가며 했다. 교수님께서 출석을 부르는 듯이, 이름을 호명하면 마이크를 켜고, 키워드를 말하고, 마이크를 껐다. 혹여 앞선 키워드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선 학생들의 키워드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긴장감을 불러일으켜 게임을 하는 듯한 착각을 만들었고, 약간의 짜릿함은 무기력한 대학생의 흥미를 돋우기에는 충분했다.           </p>	

4월에 들어서면서 강의가 중반으로 무르익어 갈 때쯤, 나는 어느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키워드를 준비하고, 기습질문에 대비하기 위해, 내용을 대략적으로 챙겨두었다. 조금은 기대되고 즐거운 일이었다. 강의자료는 모두 최신으로 업데이트한 내용이었고, 매년마다 교수님이 직접 교재를 제작하셨다. 이 또한 강의를 대충 듣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학생들에게 최신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교수님은 매년마다 내용을 개정하면서 교재를 제작하시는데, 그런 강의를 듣는 학생으로서 대충 흘러들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다. 매년 개정한 내용인 만큼 현재의 시사적인 면도 담고 있어서 강의에 더 흥미가 생기기도 했고, 사회를 보는 눈이 길러지기도 했다. 특히나, 이번 학기에는, 강의내용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교수님은 코로나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연구결과나 신문자료들을 모아서 알려주시면서, 생물학도로서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새로 나오는 정보들을 알고 있으라고 했다. 시험문제에 코로나 관련 문제를 출제하신다고 이미 선전을 하였고, 기말 시험에는 정말로 코로나 관련 문제가 나왔다. 학기 초에는 과제로, ‘covid-19와 메르스, 사스의 차이점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하기도 했다. 의약산업을 다루는 강의인 만큼 현재 문제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많이 다뤘다.

꼭 코로나 관련한 강의라서가 아니더라도, 이 강의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고, 어쩌면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의 치료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강의내용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주제로 하는 중요한 내용을 배우기에 강의에 몰입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공부한 제약회사들의 이름을 실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서, 강의시간에 배웠던 회사이름을 발견하면 반가운 느낌이 들기도 했다.

강의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다.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공부하는 것이 아닌, 넓고 얇게 훑듯이 공부하기 때문에, 제약의 기본적인 상식을 얻을 수 있고 심화된 내용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즐거움이 컸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기다리게 되는 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 어려운 내용이 출몰하기도 하였다. 작용기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교수님은 전문적인 용어 대신 우리에게 친근한 단어로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학생들이 이해할 때까지 그 하나의 작용기전에 대해서만 여러 번 되풀이 하여 설명해 주셨다. 약과 약의 타깃에 대해서 아군과 적군으로 비유해주는 식으로 지루한 내용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드셨다.

강의내용은 주로 제약회사의 제품과 제품의 작용기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의 원리를 파악하고, 그 원리 안에서 질병유발원인의 기작을 방해함으로써 약의 기능을 하게 하는 여러 약들의 과정을 공부했다. 이 때, 약이 투여되어 영향을 미칠 부분을 ‘타깃’이라고 하는데, 이 ‘타깃’을 찾는 역할이 생물학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교수님은 특히나 강조하셨다. 배우다보니, 많은 약들이 개발되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많은 생물학자들이 자신의 타깃을 찾아가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타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다른 학생들이 생물학자 같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의 꿈을 이미 찾아내어 이루기 위해 노력중이거나 꿈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제자리걸음이었다. 어디를 표적 삼아야 하는지는 오리무중이고, 그러다보니 그 타깃에 맞게 나를 디자인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타깃이 무엇일지 찾는 노력도 들이지 않고 있었다. 타깃을 찾는 과정에서 경험할 여러 번의 허탕이 두렵기 때문이었다.

교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나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주었다. ‘생물학자들은 타깃을 찾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는다. 하나의 약을 개발해내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지원받는 비용도 상당하다. 그렇기에 약품은 그 모든 것을 감안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그러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약품을 찾는다. 많은 실패를 거쳐 성공해낸 하나의 약은 인류사회에 도움을 준다.’ 하나의 약을 성공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번의 실패는 허황된 걸음이 아니라 높은 가치의 도약이라고 하셨다.

나 또한 꿈을 찾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치게 될지 모른다. 내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몇 번이나 마주할지도 모른다. 다만, 그 과정 역시 내가 원하는 꿈과 현실의 타협점을 찾는 과정으로서 헛짓거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물학자들은 인류를 이롭게 할 하나의 약을 위해, 오늘도 한 번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을 텐데, 실패가 두렵다며 멍하니 지낸 시간이 오히려 헛짓거리로 느껴졌다.

기말시험만이 남고, 마지막 강의를 하던 날, 교수님은 강의내용을 마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교수님은 대학생이었던 시절에, 과에서 제일 성적이 좋고 공부도 제일 열심히 하셨다. 그 때에 동기들 중에는, 놀기를 좋아하고 성적관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친구가 있었다고 한다. 하도 성적에 연연해하지 않았기에, 재는 나중에 무엇을 하고 지낼까 싶었다고 하셨다. 그렇게 현재 그 친구는 어느 회사의 CEO가 되어, 동기들끼리 모임을 가지면 한 턱을 내는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대학시절에만 놀았을 뿐, CEO가 되기까지 나름의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동기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른다면, 성적에 너무 매여 있지 말라고 하셨다. 그 말씀은 기말시험 성적을 걱정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꿈이 확실하지 않아 방황하고 있어도, 나중에 확실한 꿈을 찾고 이루게 되었을 때의 내 모습을 상상하게 해주었다.

종강이 왔을 무렵, 이 강의로 인해 나는 많이 성장해 있었다. 무기력으로 늘어져 있던 나는, 강의를 듣기 위해 일찍 일어나 부산스레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괜한 삽질을 할까봐 꿈을 찾으려는 도전도 안하던 겁쟁이는, 작은 위로가 불어넣어준 용기를 들고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와 소통이 단절되어가면서 생기던 외로움은, 강의 끝날 때쯤 하던 키워드대기를 통해, 다른 학생들과 목소리를 나누며 달랠 수 있었다. 교수님의 엄격한 학생 관리는 나를 긴장하게 하여 느슨하게 생활하던 나를 바로 잡아주었고, 강의 중 받은 질문은 고립되어가던 나를 꺼내주었다.

온라인 강의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했던 염려가 우스웠을 정도로, ‘바이오의약산업’은 이 고된 시기를 버텨내야 하는 나에게 든든한 위로와 격려의 강의였다. 이번 학기에 ‘바이오의약산업’ 강의와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다.